

영암 F1 서킷 연계 '모터클러스터' 힘찬 시동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F1 서킷을 연계한 패키지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이하 모터클러스터)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본래도에 올랐다. 중국 상해시가 F1 대회를 통해 얻는 경제적 수입과 함께 인근 기정구를 자동차 특화도시로 조성한 것처럼 F1과 자동차 산업을 연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F1 경기를 통한 홍보 효과를 지역 자동차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4년간 786억 투입 국내 부품기업 매출액 연 22조원 증대 기대

◇모터클러스터 '시동'=최근 기획재정부 전남도가 제출한 모터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에 전달했다.

기재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돼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모터클러스터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영암군 산호읍 일원 F1경주장 인근 6만6000㎡ 부지에 총사업비 786억원(국비 439억원·도비 178억원·민자 169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주요사업은 R&D 3대 부문 5개 과제와 성능연구개발센터 건립, 초고속 타이어 성능 시험기 등 전용장비 도입, 평가기반기술 공개개발 등이다.

또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에 따른 관련 산업화의 첫 사례이자 도가 주도하는 국가 규모의 유일한 R&D사업으로, 타이어, 휠, 제동장치 등 3대 R&D 분야에만 연구개발비 417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전남도는 2009년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고 1차적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좌절됐고, 이듬해 계획을 보완해 신청했으나 역시 탈락했으며 이번에 3번째 도전 만에 국책사업에 선정됐다.

◇부품생산에서 테스트까지=모터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자동차 업체도 현재 독일 F1 서킷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행테스트와 부품 성능 시험을 영암 F1 경주장에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주행테스트와 함께 모터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전남 지역에 자동차부품 기업의 입주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주행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다.

F1서킷을 활용해 평가 가능한 주행성능 실험

◇모터클러스터 위치



힘은 차량의 승차감, 조종성, 안정성 평가와 타이어·휠 성능 평가 등 다양하다. 영암 F1 서킷에서 성능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게 될 타이어, 휠, 브레이크 등의 프리미엄 자동차부품은 수입 대체 효과도 있다.

◇F1 연계 효과도 커=지식경제부와 전남도가 공동 추진하게 될 이번 국책사업 유치는 전남이 국내 유일의 세계 최고 등급의 F1 경주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도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의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 확대 ▲국내 부품기업 매출액이 연간 22조원 가량 증대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해외 F1 서킷에서의 시험평가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리미엄 자동차부품 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부품기업들의 매출액이 22조원 가량 늘고 수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 F1서킷에서 자동차부품 전량 시험 평가하면서 지급했던 해외 수수료 비용, 시간 절약 등 연간 50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고성능·고효율화, 신소재 핵심기술을 적용한 패키지 차부품 개발로 중국 등 신흥국과 차별화된 선진국형 고부가 프리미엄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암 F1 서킷과 연계한 '모터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인근에 모터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는 영암 F1 서킷의 모습.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업체(BMW, 벤츠, 아우디 등) 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F1이 지역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F1 연계산업 육성은 세계적 추세=F1 경기와 자동차 관련 산업을 연계해 육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상해 F1을 개최하고 있는 중국은 상해 가정부에 국제자동차단지(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총 계획 면적이 68km에 달하고, 한화 총 1800억여원을 투입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탈리아도 마넬라노 외곽 F1 서킷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 튜닝 및 성능 평가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다.

영국도 세계 최대 모터스포츠 클러스터(Silverstone)를 조성해 4만명 고용, 연간매출 90억달러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 미국도 레이싱 서킷 주변에 토요타, 혼다 등 완성차와 부품회사의 생산 시설을 건립했고, 일본도 F1 서킷과 튜닝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터클러스터 예타 통과 숨은 공로자

박지원 의원 '압박과 읍소' 통했다

전남도의 'F1 연계 고품질 자동차 부품 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본 개도에 오른 배경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당초 전남도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F1 대회를 토대로 하는 '자동차 튜닝 사업' 육성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F1 대회는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기반 조성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F1 대회를 토대로 한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명분으로 정부

에 인식을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전남도에는 사업 성격의 전환을 주문했다. 현행 국내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자동차 튜닝 사업으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내기 어렵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전남도는 F1 연계 사업 내용을 '자동차 튜닝'에서 'F1 서킷을 활용한 프리미엄 부품 R&D 및 시험평가기반 조성사업'으로 조정했다.

이를 들고 박 원내대표는 '압박과 읍소'의 전략을 전개했다. 정부 부처 장차관에는 "이명박 정부가 전남도에 해준 게 뭐냐"며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은근한 정치



적 '압박'에 나서는 한편, 담당 국장과 과장에 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읍소'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F1 서킷 연계 고품질 자동차 부품 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나 "올해 정기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사업이 본 개도에 오른 것은 박준연 전남지사와 전남도 공무원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을 전남도에 돌렸다. /임동욱기자 tuim@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만큼 수속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용량(2009년 기준) kWh/월	설치시 월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월)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월)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월)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월)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월)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60kWh/월)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월)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 후 태양광설치 업체,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직업
압박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대시공범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0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이다.
5. 창턱, 발코니 등도 사용될 수 있다.
6. 고수는 땅에서 열리는 것보다 3~4배 더 저렴하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 더서 틀어서 틀바짐이 필요하다. ※ 상기 액체 도료 및 마티지 도료는 개발호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할 수 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차에 우리측사의 인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낼정도로 인해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로 100미터로 새로 깔았기 때문에 아무런 폭우가 와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반가워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점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반 영구적이라 시공을 했을 때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는 강판이 희고 있습니다. - 임준호 -

슬라브 강판을 한지 3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들어오면 첫째, 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많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배 넘으니 연료가 절약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상순용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